
-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강 원 도 의 회
(의 정 관 실)

〈 목 차 〉

I . 출장개요	1
II . 주요 방문기관	3
1. 탈린(Tallinn) 시청	3
2. 탈린(Tallinn) 시의회	7
3. e-에스토니아	10
4. 카우나스 테크놀로지 파크	15
5. 빌뉴스 시티 이노베이션 산업단지	19
6. 빌뉴스 시청	23
III . 현장방문 및 기타 활동	27
1. 리가 창고지구 도시재개발 현장 방문	27
2. 연찬회 개최	28
※ 참고 1. 현지정보	29
※ 참고 2. 출장자 명단	32

-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I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0. 1.29.(수) ~ 2. 6.(목) / 7박9일

□ 출장지역 :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출장인원 : 총 21명

○ 시·도의회 의장 6명(부산, 울산, 세종, 강원, 전북, 경남)

○ 시·도 수행직원 13명, 협의회사무처 직원 2명

※ 강원도의회 : 한금석 의장, 김남호 수행(행정7급) 참석

□ 출장목적

○ IT 행정서비스 전산화 사례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발전방안 모색

○ 도시재생정책 전변에 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 지방자치 사례분석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역량강화 모색

□ 주요 방문기관

○ 에스토니아(3) : 탈린시청, 탈린시의회, e-에스토니아

○ 리투아니아(3) : 카우나스 테크놀로지 파크, 빌뉴스 시티
이노베이션 산업 단지, 빌뉴스 시청

※ 라트비아는 일정상 주말기간 체류함에 따라 정책현장 견학 추진

□ 주요일정

방문일시		기관명	주요활동
1. 30(목)	09:00	○ 탈린 시청	기관방문
	11:00	○ 탈린 시의회	기관방문
1. 31(금)	09:00	○ e-에스토니아	기관방문, 학습 연찬회
2. 1(토)	16:00	○ 도시재생 정책현장 (Spikeri Quarter)	현장견학, 학습 연찬회
2. 3(월)	16:00	○ 카우나스 테크놀로지 파크	기관방문
2. 4(화)	09:00	○ 빌뉴스 시티 아노베이션 산업 단지	기관방문
	11:00	○ 빌뉴스 시청	기관방문

□ 국가별 체류일정 요약

① 인천공항 출발(1. 29.(수) 11:15) → ② 에스토니아(3박) →
 ③ 라트비아(2박) → ④ 리투아니아(2박) → ⑤ 인천공항 도착
 (2. 6.(목) 09:10)

II

주요 기관 방문

1. 탈린시청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0. 1. 30.(목) 09:00 ~ 10:30
- 방문장소 : Tallinn City, Government Vabaduse SQ 7
- 참 석 자 : Mihhail Kõlvart(시장), Tomas Sepp(담당관) 등 3명

□ 주요내용

〈 탈린 시장(Mihhail Kõlvart) 면담 주요내용 〉

- ▶ 고려인 2세 모와 에스토니아父 사이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
- ▶ 現 에스토니아 태권도협회 회장, 올림픽(IO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한국문화 전파에 노력
- ▶ 2018년 서울시-탈린시 간 우호도시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교류중
 - '18년 서울시장 탈린시 방문, '19년 탈린시장 서울 방문 및 명예시민증 수여
- ▶ IT, 스마트시티,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여러 도시들과 교류협력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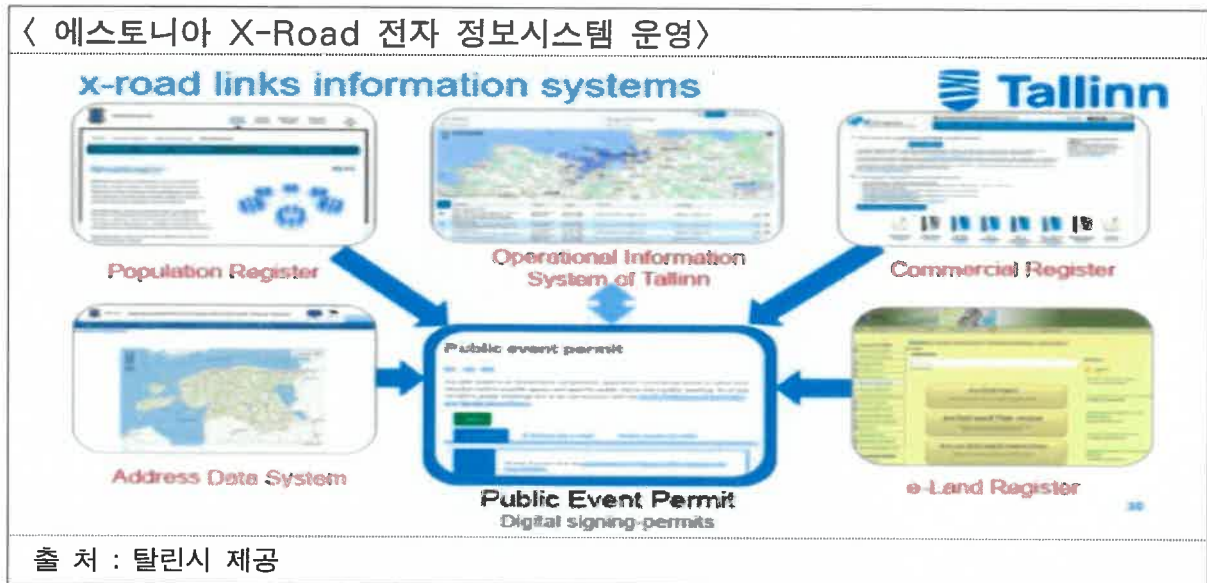
〈 에스토니아 및 탈린시 현황 〉

- 에스토니아 국가체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선출된 대통령 및 총리, 행정부처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Resional) 개념의 15개 자치주가 있으며, 기초 자치단체(Local)로 79개의 지방정부가 있음
 - 2017년 이전에는 213개 지자체가 있었으나, 현재 79개 지자체로 통합 (2017.10.16. 이후)
 - 2017년부터 선거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하향

- 수도 탈린은 에스토니아 전체 인구의 1/3인 45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무료정책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보임
-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을 선출하고 시의회에서 시장을 임명하며, 6명의 부시장이 있음
- 탈린시에는 1,500명의 시 공무원이 있으며, 교사·복지인력 등을 포함하면 약21,000여명의 인력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 예산은 2019년 8억2천3백만 유로(€)이며 한화 약 1조7백억원임
 - 세입 : 소득세 등 주세금 66.2%, 사업소득 19.1%, 기타소득 14.7%
 - 세출 : 교육분야 42.8%, 대중교통 지원 13.9% 등

〈 전자정부 운영 현황 〉

- 2001년부터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운영중으로, 민간·공공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X-Road 프로그램¹⁾을 통해 정부 각 분야에서 상호 교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음
 - 매일 1,000개 이상 기관·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 인접국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핀란드 X-Road 연합' 설립(2018.2월) 협력시스템 구축



- 특히, 시민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전자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개발하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각 지방정부에서 활용하여 개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탈린시 예산의 1%에 해당하는 연간 1천만 유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 X-Road : 에스토니아에서 개발한 인터넷을 통해 정부 부서간 정보를 교환·연계 해주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

□ 시사점

- 에스토니아 수도 탈리시는 인구 45만명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의 중소도시이나,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혁신정책으로 명성이 높음
- 에스토니아 중앙정부 주도의 효율적 정책 추진으로 정부 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및 시민들까지 사회 전반에서 촘촘하고 유기적인 전자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음
- 전자정부 활성화 외에도 주목할 만한 정책이 있는데, 바로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시에서 2013년부터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임
 - ※ 단, 탈린시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관광객일 경우 요금 지불
-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및 사전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임
 - 탈린시에서는 정책 시행 이후 인접 국가·도시로부터의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세 추가 확충, 기업으로부터의 교통 유발 분담금 징수로 재원 마련
-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과도한 예산을 수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1)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혼잡한 도심 정체 완화 2) 자가용 등 운행차량 감소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큼
- 현재 세계 각국은 대기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대중교통 무료 혹은 할인정책을 시행중이거나 검토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지하철 무료 승차 정책 이외에 최근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책을 시행한 사례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였음
- 탈린시와 같은 중소도시가 아닌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이처럼 일시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국내 실정에 맞는 정교한 계획 수립과 세수 확충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현장사진



2. 탈린 시의회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0. 1. 30.(목) 10:40 ~ 12:00
- 방문장소 : Vana-Viru 12, 15080 Tallinn, Estonia
- 참 석 자 : Mart Luik(부의장) 등 2명

□ 주요내용

- 2017년 10월 지방의회 선거 실시에 따라 현재 탈린시 전체 시의원은 79명으로 이 중 41명이 다수당인 중도보수당(central party) 소속임
- 의장 1명, 부의장 2명(여당 1, 야당 1)으로 지방선거 후 전체 79명의 의원이 의장, 부의장 및 시장 선출·임명하고 있으며, 교육, 법, 재정, 혁신 등 10개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는 다수당(중도보수당)에서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음
 - 현재 탈린시의회를 비롯한 에스토니아는 탈부패, 청렴이 주요 국정목표로 의회 부정·부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지방정부 다수당이 아닌 야당에서 상임위원장 역임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는 절차이며, 모든 안건 처리는 종이문서 없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됨
- 탈린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지방정부 예산 심의·의결로 효율적인 예산 분배와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 탈린시의회는 주요 과제로는 친환경 녹색정책으로서, 특히 친환경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탈린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중 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린 시내 제조업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등 우수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탈린시가 전세계 녹색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음

- 탈린시의 다른 주요 과제로는 공용어인 에스토니아어의 확립정책임. 현재는 전체 인구의 30%가 러시아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립학교에서 에스토니아어 단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에스토니아는 오랫동안 덴마크, 독일, 폴란드, 스웨덴, 러시아 등 주변 강국에 의한 피지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특히, 18세기부터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으며 1940년 구소련의 공화국으로 편입된 후 1991년 독립하여 주권을 회복하기 까지 오랫동안 러시아 영향권에 소속되어 있었음
- 에스토니아는 지정학적으로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폴란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간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음
 - 탈린-헬싱키 간 해저 터널 건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트3국 간 철도 연계사업도 진행중임
 - 북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 철도연계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함께 논의중에 있음

□ 시사점

- 에스토니아는 과거 주변 강대국에 의한 식민지배 경험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현재는 이러한 지정학적 특수성을 강점으로 유럽 국가간 철도 연계망 구축 등 유럽내 교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도 탈린시가 부각되고 있음
 - 현재 진행중인 탈린-헬싱키 해저터널 건설, 발트3국 철도연계 사업 등은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협력 또한 중요한 성공 요소로 작용할 것임
- 탈린시의회 등 에스토니아 지방의회는 집행부 시장 임명 등의 강력한 권한을 지닌 기관통합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책임정치 실현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으로 관련 법령·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도 확립 노력이 필요함

□ 현장사진



3. e-에스토니아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0. 1. 31.(금) 09:00 ~ 11:00
- 방문장소 : Valukoja 8, 11415 Tallinn
- 참 석 자 : Liina Maria Lepik(담당이사) 외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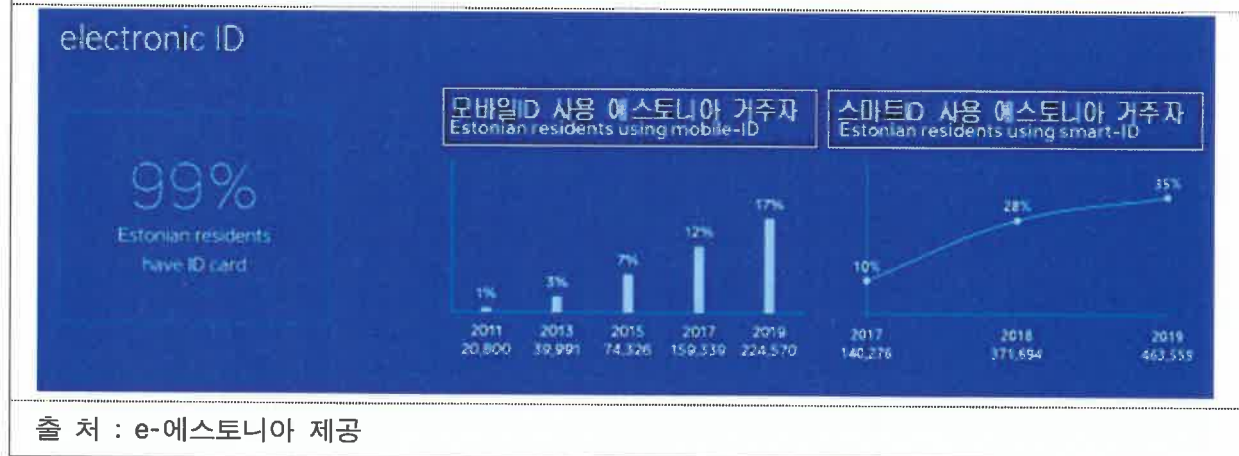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추진 현황 〉

- 먼저 에스토니아의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배경을 살펴보면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수에 따라 효율적 정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으며, 소극적 성격의 국민성에 따라 인터넷 소통이 발달되었음
- 이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에스토니아 ICT 기술의 빠른 확산 요인으로는 첫째, 인터넷(정보통신) 이용이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어 공공 WIFI 보급 확대 등 인터넷 접근성이 발달하였고
둘째, 국가 정책에 의한 저렴한 인터넷 이용 요금(10G 사용시 월 8유로) 및 전자신분증 보급 활성화를 들 수 있음
- 특히, 전자신분증 보급은 전자정부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에스토니아 시민이 아닌 거주민을 중심으로 발급되며, 전자신분증으로 의료, 세금, 교육 등 정부 서비스의 99% 이용 가능함
 - 주민등록번호(식별번호) 만으로는 행정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하고 전자신분증(IC카드)에 내장된 2개의 PIN 코드로 단계별 정보 확인
-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접근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전자신분증 2) 유심칩 활용 모바일 ID 3) 어플 기반의 스마트 ID 4) 외국 거주자용 e-레지던스(전자거주민) 카드 가 있음

- '20.1월 현재 e-레지던스(전자거주민)는 64,862명으로, e-레지던스 카드로 타 국가에 거주하면서 에스토니아 내 회사설립·운영 및 국가서비스 이용 가능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보급 확대로 모바일 ID 및 스마트 ID 활용 증가 추세

〈 에스토니아 전자신분증 활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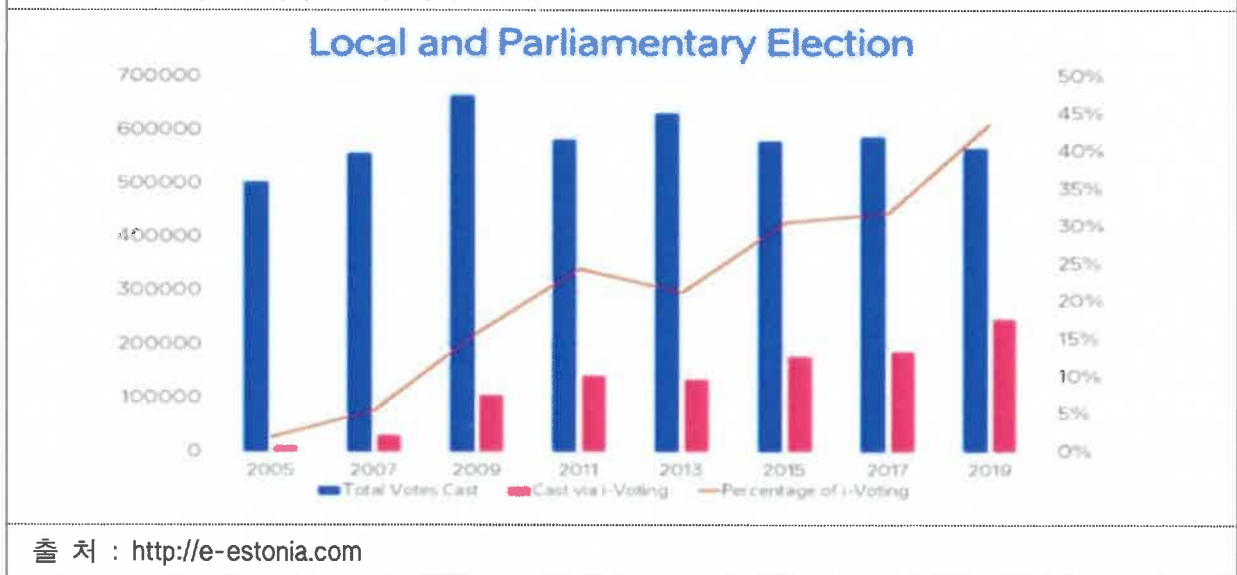


- 전자정부 실현에 앞서 에스토니아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고 정보보호의 3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개인정보 확인 및 수집은 1회만 실행, 수집정보는 분산 처리
 - 예) 주소정보는 '인구청'에서만 수집하며, 타 부서에서는 개별 수집 금지
 - 둘째, 모든 개인정보 디지털 문서화하여 문서 유출 방지
 - 셋째, 본인 개인정보 활용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열람 기능 제공
- 이러한 정보보호 정책을 바탕으로 전자신분증을 이용한 세부적인 행정 정보 제공이 일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주민 활용도 또한 높음
 - (의료행정) 병원 진료 후 처방전 전자신분증 전송, 체계적인 개인 건강정보 관리
 - (차량정보) 사고유무, 등록, 보험 등 차량 세부정보 제공하여 중고차 거래시 활용
- 나아가 적극적 행정 실현 및 미래수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가 행정서비스 사전 알림서비스를 19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예시) 자녀 출생시, 출생등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 시점에서 초등학교 배정 예약을 가능하게 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에 활용
- 에스토니아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전자정부 실행은 정부 서비스 간 정보 연계 프로그램인 X-Road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인터넷(github.com)에서 소프트웨어 무료 사용 가능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수출

〈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제도 운영 〉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에스토니아 정부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 하였음
 - 2005년 처음 도입 당시 전자투표 참여율은 2%에 불과했지만, 2019년 현재 유권자의 44%가 전자투표에 참여

〈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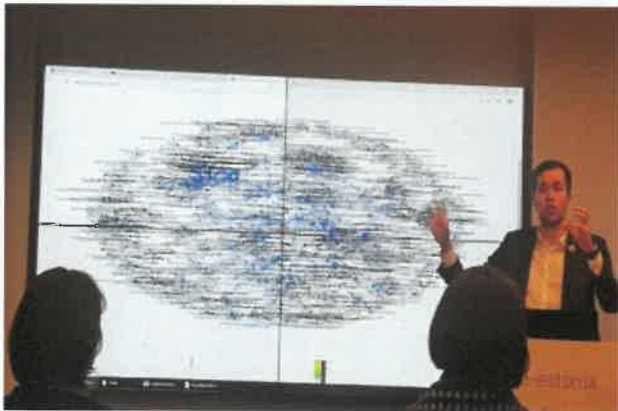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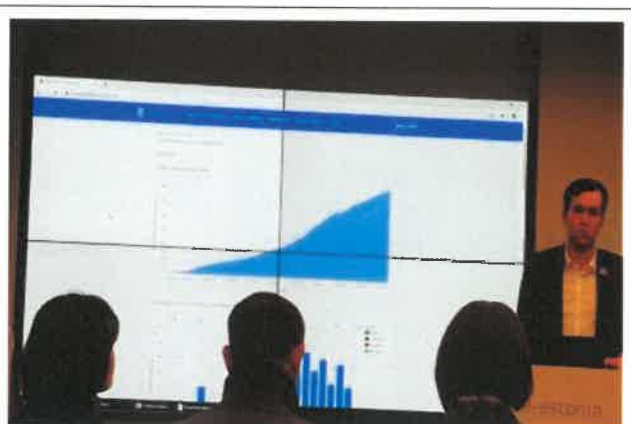


- 전자투표 시행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3자로부터 강요·강압에 의한 부정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으로, 에스토니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10일간의 투표기간 중 최초 7일간의 전자투표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재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자 투표는 물론 종래 방식의 투표도 병행하고 있음
- 전자투표 절차로는 1) 디지털 ID를 통한 인터넷 접속 2) 투표 3) 전자 서명(e-signature) 의 간단한 단계로 구성됨
 - 전자서명(e-signature)은 2002년 도입된 제도로 전자서명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 된 계약문서(PDF파일) 등은 법적 효력을 가짐
- 이러한 전자투표 제도 도입으로 투표용지 인쇄 및 개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였고, 전자서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를 절감하였음

□ 시사점

- 현재 사회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
- 세계 각국의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ICT에 기초한 온라인 시스템을 행정에 활용하는 '전자정부(e-governance)'임
-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운영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정부의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자투표·교육·의료·치안·비즈니스·은행업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가 전자정부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부 주도의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특히 전자신분증(ID 카드) 보급 및 전자 서명(e-signature) 도입 확대로 본인 증명 방식을 단일화 하였고 각종 접수·확인 절차를 단순화하여 디지털화에 성공하였음
- 전자정부(e-governance)의 발달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생산성·투명성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NGO·시민들의 사회 참여 확대에도 기여함
- 특히,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참여율 향상 및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투표율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로서, 전자투표 도입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장사진



4. 카우나스 테크놀로지 파크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0. 2. 3.(월) 16:00 ~ 17:30
- 방문장소 : K. Petrausko g. 26, LT-44156 Kaunas, Lithuania
- 참 석 자 : Dr. Vygintas Grinis(총괄이사)

□ 주요내용

- 카우나스 테크놀로지 파크는 1998년부터 IT 분야 등의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과학기술 연구단지와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내 카우나스 공대 등 대학교, 카우나스 시 등 학계와 지자체, 기업 등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학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혁신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함
 - ※ 카우나스 공과대학교(Kauno Technologijos Universitetas, KTU)는 공립 이공계 연구중심대학교로서 토목공학, 기계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분야로 특성화 되었으며, 발트해 국가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과대학교임
- 카우나스는 지역내 7개 대학 35,000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대학도시로서 지리적으로 리투아니아 중심부에 위치하며, 발트 연안국가의 교통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음
 - 지역내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 발트3국간 철도 연계 예정으로 중심 경유지에 카우나스가 위치하게 됨
- 카우나스 지역 특성에 따라 IT, 의학, 자동차, 항공 등의 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있음. 특히, 국제공항 인근 자유경제지구 중심으로 성장세가 파르게 보임

- 이러한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카우나스 테크놀로지 파크는 다양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실행중으로 리투아니아 국·내외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 카우나스 테크놀로지 파크 입주사 지원 사업 〉

- 회원사 워크숍 및 교육체계 지원
-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Evolut 4.0〉 운영 지원
-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시스템 지원
- 연간 40회 이상의 컨퍼런스 및 회의 개최
- 분야별 전문 컨설팅 제공
- 리투아니아 R&D 시스템 활용
- 지역내 대학교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 등

- 특히 입주 회원사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시설이용 및 컨설팅 등 서비스 할인을 제공 받고 자립하게 되며 자립여부는 5년 경과 후 판단됨
 - 1년차 : 시설 이용금액(컨설팅 비용, 사무공간 임대료 등) 60% 할인
 - 2년차 : 시설 이용금액(컨설팅 비용, 사무공간 임대료 등) 40% 할인
 - 3년차 : 시설 이용금액(컨설팅 비용, 사무공간 임대료 등) 20% 할인
 - 4년차 이상 : 할인 혜택 종료
- 2020년 현재 누적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을 인큐베이팅 하였으며, 약85% 자립 성공률을 보이고 있음. 현재는 100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인큐베이팅을 진행중임

□ 시사점

- 카우나스 테크놀로지 파크는 지방정부 주도의 산학협력 연구·산업단지로 지역내 대학 인프라 및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기업 육성·지원에 특성화된 기관임
- 산학협력은 국가경제 및 기간산업 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확보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임. 특히 산·학 뿐만 아니라 민·관 까지 아우르는 협력은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현재 전 세계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실정임
- 대학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에서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으로 역할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발전에도도함으로써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교육진흥법」 제정 등 법·제도 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확보 노력을 시작으로,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 조성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설립하며 본격 추진되었음
-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 대학, 기업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 밀접지역인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학과 지역산업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등의 협력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절벽에 직면한 국내 상황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 폐교 등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대학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산학협력 연구사업 등이 진행중에 있음.
이처럼 지역 주도의 산·학 협력사업 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될 것으로,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산학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함

□ 현장사진



5. 빌뉴스 시티 이노베이션 산업단지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0. 2. 4.(화) 10:00 ~ 11:30
- 방문장소 : Vismaliuku street 34, LT-10243 Vilnius, Lithuania
- 참 석 자 : Monika Valeišaitė(담당 매니저) 외 1인

□ 주요내용

- “빌뉴스 시티 이노베이션 산업단지(Vilnius City Innovation Industrial Park, 이하 VCIIP라 함)”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인근 (구)소련 군사 기지 내 국유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4ha(240,000m²)에 달함
- 2002년 사업 시작 이후 2015년 리투아니아 국가 프로젝트로 승인 되었으며, 현재 산업단지 일부를 개발하여 기업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15. 2 리투아니아 정부로부터 “국가 중요 경제 프로젝트” 승인
2018. 4 빌뉴스 시의회 ‘VCIIP 설립’ 의결
2018. 8 빌뉴스시와 함께 ‘VCIIP’ 운영 및 투자유치 착수
2022.12 리투아니아 정부 목표 달성(예정)
2027.12 전체 계획부지(23.92ha) 조성 완료(예정)
2037.12 38ha로 산업단지 규모 확대(예정)

- 빌뉴스시는 VCIIP 운영으로 인하여 경제성 높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지역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투자유치 등으로 500만 유로 이상의 세수 확보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그 외에도 경영과 과학 협력으로 지속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체 전체 24ha 면적 중 3ha를 시민을 위한 공용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계획하는 등의 순기능도 기대하고 있음

- VCIIP는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강점을 소개하고 있음
 - 첫째, 빌뉴스 시내 및 국제공항과 30분 거리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국유림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함
 - 둘째,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셋째, 국가 선도사업 7개 전문분야의 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 간 클러스터 연계 활동을 지원함
 - ※ 7개 중점 투자분야 : 건강·바이오, 농업·식재료, 에너지, 사회적 활동, 신소재, 스마트 교통, 정보통신
 - 넷째, 스타트업 기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모든 규모의 기업에게 개방되어 있음
-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2018. 8월 운영 시작 이후 현재까지 1,200만 유로 투자유치 및 135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시사점

- 리투아니아 VCIIP는 국가 중요 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 빌뉴스 인근 국유림 지역에 대규모 혁신 경제 산업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임
- 우리나라 또한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신산업 및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서 제조, 지식, 문화 등 분야별 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산업단지 개발-관리-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차원의 지원에 따라 2019년 3분기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총1,212개, 입주업체는 101,784개사(2.7% ↑, 전년대비), 고용은 2,208천명(2.6% ↑), 생산 737조원(7.4% ↓, 누계), 수출 2,625억달러(14.2% ↓, 누계), 분양률은 94.7%를 기록하고 있음

- 2019년 3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구 분	입주업체 (개사)	가동업체 (개사)	고용(명)	생산(십억원)	수출 (백만달러)	분양률(%)
'19.3분기	101,784	93,198	2,207,752	737,320	262,491	94.7
'18.3분기	99,075	90,073	2,152,426	795,994	306,016	94.5
전년대비	27%	3.5%	26%	△7.4%	△14.2%	0.2%p

-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권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권역별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권

-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 재정 자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별 산업 특수성을 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자체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기업 이전·신규 유치시 국고보조금 확대 등의 지원확대가 필요함

□ 현장사진



6. 빌뉴스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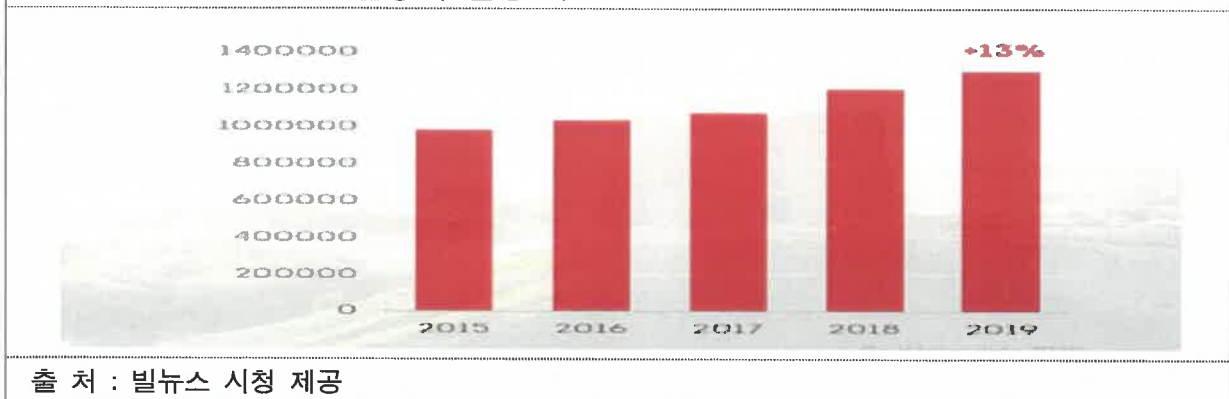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0. 2. 4.(화) 12:00 ~ 13:30
- 방문장소 : Budget office, Konstitucijos Ave. 3, LT-09601
- 참 석 자 : Jurga Pociūtė-Mikūtienė(국제관계담당관) 외 1인

□ 주요내용

-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는 유럽의 성장 중심에 있으며 위치상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의 연결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영국, 독일, 폴란드 등 타 유럽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현재 인구는 56만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관광, 도시 마케팅, 컨벤션 개최, 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유럽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 관광정책으로는 미식여행, 거리 예술·문화 관련 현대 문화 행사 개최, 영화 산업, 순례 여행 지원 등이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해 교통, 통신 등 서비스 인프라 개선 및 관광 플랫폼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그 결과 빌뉴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9년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음.

〈 연도별 빌뉴스 방문 관광객 현황 〉



- 주요 교역시장으로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 등이 있으며, 이들 유럽 국가 이외에도 전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에 힘쓰고 있음

- 2019년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빌뉴스 관광 관련 기사를 560개 이상 작성하여 전세계 50억명 이상에게 제공하였음
 - “Vilnius - The G Spot of Europe” 캠페인 활동은 197권의 출판물에서 20억명의 독자에게 전달되었으며, 국제 여행 및 관광분야에서 최고의 광고 캠페인으로 선정
- 국제회의 유치 등 MICE 산업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주요 분야로는 FIN테크, 정보통신(ICT), 바이오, 레이저, 의학 및 통신 산업 등이 있음
 - 2018년 빌뉴스에서 열린 회의 및 행사는 611건이며, 참가자 수는 75,052명으로 이는 2017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임
- 빌뉴스는 리투아니아 국가 전체 GDP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빌뉴스 노동 인구의 1/3은 해외 자본 회사에 고용되어 있음
- 주요 경제 분야로는 FIN테크, ICT&GAME 개발, 바이오테크, 레이저 산업 등으로 동 분야에서 유럽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임
 - FIN테크 산업 발달로 전자화폐 관련 업무가 타 EU국가 보다 2~3배 이상 빠르게 처리, 유럽국가에서 가장 간소화된 은행운영 절차 제공
 - 정보통신, FIN테크, 금융 등 산업 전반에서 우수한 전문인력 다수 보유
 - 2018년 FIN테크 관련 기업 56% 성장 하였으며, 유럽내 FIN테크 관련 국제 컨퍼런스 정례 개최 등 정보 교환 허브로 기능
- 공유경제 발전 수준도 유럽 국가 중 높은 편이며, 사무 공간, 의류, 이동수단 등 사회 전반에서 공유경제 확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리투아니아 국내 의류 렌탈 기업 Vinted, 공유 차량 플랫폼 기업 City Bee 등의 공유경제 기업 성공사례가 있음

□ 시사점

- 빌뉴스는 리투아니아의 수도로 FIN테크,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도시홍보 및 MICE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MICE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
 - ※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MICE 외래 참가자의 1인당 소비지출액은 일반 관광객 보다 약3,6배 높고, 고용창출, 도시홍보 및 마케팅 등과 연계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사업
- 서울의 예를 들어보면, MICE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18년 한해 총186건의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했고, 4년 연속 'Best Mice City' 및 3년 연속 세계3위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음
-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풍부한 MICE 기반시설 확보 및 차별화된 컨셉 개발이 선결과제임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통신의 사회기반시설은 우수하나 다양한 규모의 전시·회의시설 등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이며, High Tech City, 한류, 전통문화유산 등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강점을 살린 MICE 모델 구축 및 지역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임
- 리투아니아 정책의 또 다른 시사점으로는 앞선 정보통신기술 등을 기반으로 국민 수요에 맞추어 공유경제 관련 신사업 장려 정책을 들 수 있음. 이는 우버, 타다 등 차량 공유경제 도입과 관련 정부 규제와 기존 산업계 반발로 논란이 되는 우리나라 상황과 큰 차이점을 보임
- 현재 유럽 뿐 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확산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으로서 규제 대상으로서가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함

□ 현장사진



III

현장방문 및 기타 활동

1. 리가 창고지구 도시재개발 현장(Spikeri Quarter) 방문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0. 2. 1.(토) 14:00 ~ 16:00
- 방문장소 : Maskavas street 6, Riga, LV-1050

□ 주요내용

- 라트비아 리가 인근 오래된 항구 주변 창고 및 재래시장 주변을 현대화 시장 및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재개발
- 콘서트, 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

□ 현장 사진



2. 연찬회 개최

□ 개 요

- 개최일시 : 출장기간 중 2회 개최
 - (1차) 2020. 1.31.(금) 11:00 ~ 12:00
 - (2차) 2020. 2. 1.(토) 19:00 ~ 20:00
- 개최장소
 - (1차) 탈린 e-에스토니아 회의실
 - (2차) 리가 RADISSON BLU 호텔

□ 주요내용

- 탈린시청, e-에스토니아 등 기관 방문에 따른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정보통신산업 운영현황 토론
- 정보통신산업 발달에 따른 공공기관 역할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 논의

□ 현장 사진



1.31.(금) 제1차 연찬회



2. 1.(토) 제2차 연찬회

참고 1

현지 정보

1 에스토니아(ESTONIA)

○ 기본정보

- | 수도 : 탈린(40만명)
- | 면적 : 45,228km²(세계 130위, 한반도의 1/5, 2016 국토교통부, FAO 기준)
- | 인구 : 132만 6,535명(세계 154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 | GDP : 302억 8,489만(세계 97위, 2018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 | 언어 : 에스토니아어(공용어), 러시아어(전체 인구의 약 30%가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
- | 인종 : 에스토니아인(69%), 러시아인(30%) 등
- | 종교 : 루터교, 러시아정교
- | 통화 : 유로(2011.1.1. 유로존 가입)
- | 독립 : 1991.8.20. 소련으로부터 독립(1918.2.24. 최초 독립)

○ 정치현황

-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내각 : 연합연정)
- | 의회구성 : 단원제(101석), 4년 임기('19.3 총선 결과)
- | 주요인사
 - 국가원수 : 케르스티칼유라이드('16.10 취임, 무소속)
 - 총 리 : 유리 라타스('16.11 취임, '19.5 연임 중도당)

○ 경제 현황

- | GDP : 303억불(1인당 GDP : 22,928불) * 2018, WB
- | 교역 : 수출(177억불), 수입(193억불) * 2018,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외교관계 수립 : 1991.10.17
- | 교역 : 수출(93백만불/금속절삭가공기계, 승용차 등), 수입(81백만불/합판, 제재목 등)
* 2018, 한국무역협회
- | 투자현황 : 對에스토니아 투자(2건, 110천불), 對한국 투자(4건/37천불) * 2018 누계, 신고기준
- | 교민현황 : 47명(2017년)
- | 북한과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없음
 - ※ 발트3국 중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서, 북핵,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

② 라트비아(LATVIA)

○ 기본정보

- 수도 : 리가(64만명)
- 면적 : 64,589km²(한반도의 1/3, 2016 국토교통부, FAO 기준)
- 인구 : 192만명(2018.7월)
- 인종 : 라트비아인(61%), 러시아인(26%) 등
- 종교 : 루터교, 카톨릭교, 러시아정교
- 통화 : 유로(2014.1.1. 유로존 가입)
- 독립 : 1991.9.6. 소련으로부터 독립(1918.11.18. 최초 독립)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내각 : 중도우파연정)
- 의회구성 : 단원제(100석, '18.10월 총선 결과)
- 주요인사
 - 국가원수 : 에길스 레비츠('19.7월 취임)
 - 정부수반 : 아르투르스 크리슈야니스 카린스('19.1월 취임)

○ 경제 현황

- GDP : 348억불(1인당 GDP : 18,089불) * 2018, WB
- 교역 : 수출(153억불), 수입(187억불) * 2018,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91.10.22
- 교역 : 수출(0.66억불/자동차부품, 타이어 등), 수입(0.86억불/유연탄, 제재목 등)
* 2018, 한국무역협회
- 투자현황 : 對라트비아(6건, 785만불), 對한국 투자(1건/120만불) * 2018 누계, 신고기준
- 교민현황 : 52명(2019년)
- 북한과의 관계 : 1991.9월

③ 리투아니아(LITHUANIA)

○ 기본정보

- ▮ 수도 : 빌니우스(59만명)
- ▮ 면적 : 65,300km²(한반도의 1/3, 2016 국토교통부, FAO 기준)
- ▮ 인구 : 279만명
- ▮ 인종 : 리투아니아인(87%), 폴란드인(6%), 러시아인(5%) 등
- ▮ 종교 : 카톨릭교, 러시아정교, 개신교
- ▮ 통화 : 유로(2015.1.1. 유로존 가입)
- ▮ 독립 : 1990.3.11.

○ 정치현황

- ▮ 정부형태 : 의원집정부제
- ▮ 주요인사
 - 대통령 : 기타나스 나우세다('19.7월 취임)
 - 총 리 : 사울리우스 스크베르넬리스('16.11월 취임)

○ 경제 현황

- ▮ GDP : 532억불(1인당 GDP : 19,089불) * 2018, WB
- ▮ 교역 : 수출(334억불), 수입(365억불) * 2018,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외교관계 수립 : 1991.10.14
- ▮ 교역 : 수출(3.1억불/화학제품, 타이어, 철강 등), 수입(8천만불/사료, 목재, 치즈 등)
* 2018, 한국무역협회
- ▮ 투자현황 : 對리투아니아(9건, 338.6만불), 對한국 투자(5건/39.7만불) * 2018 누계, 신고기준
- ▮ 교민현황 : 107명(2018년)
- ▮ 북한과의 관계 : 1991.9월